

대구
삼영불교서점
2대째 운영...용품·음반도 판매

“책과 불심 함께 보급”



현 대표인 이재근(55)씨의 부친 이승환 회장(78)이 40여 년 전에 창업해 2대째 운영하고 있다. 도서는 약 3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주 이승환 회장은 “당시에는 일반 출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

인사 손님들과 알고 지내면서 손님들의 책을 한 두 권씩 출판하게 된 것이 불교전문서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책을 통해 불교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장은 약 20여평 정도이며, 불서와 함께 불교용품도 판매하고 있다. 음반 종류만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며, 도서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불교출판사들과는 모두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 (053)421-3980 박재완 기자

대전
보문불교서점

3만여 불서 온·오프라인서 ‘대기중’



1963년 현 김정수(45) 대표의 부친인 김주홍(70)씨가 창업할 당시엔 일반 서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불자였던 김주홍 씨가 불교 서적을 한 두 권 구해서 가져다 놓기 시작한 것이 불교전문 서점이 된 시초였다고 한다. 현재는 3만 여권의 불서를 판매하면서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현재 운영자인 김정수 대표는 불교서점에 대해 밝게 전망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지만 주 고객층이 50-60대에 그치는 것도 시장 활성화



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장년층 고객이 없어지고 나면 소비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www.buddhazone.co.kr, (042)257-0161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
해인불교서점

대구불교 1번지 ‘책포교 1번지’

해인불교서점이 위치한 대구 남산동은 조계사가 있는 서울의 견지동과 같은 동네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불교용품점이 많이 모여 있다.



남산동에는

7-8개의 소규모 불교서점이 모여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해인불교서점이다. 1978년 문을 연 이 서점은 국어교사 출신인 김규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김씨는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두고, 알게 된 스님의 권유로 불교서점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출 규모를 묻자 “지금은 이익창출보다는 포교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 이 서점 역시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었다. 불서는 약 2만권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 방식은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해인 서점 역시 불교출판사와 직거래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053)425-0108 박재완 기자

광주
불일서점

원각사 포교원 직영, 3만여권 구비

팬사인회 등 ‘이벤트’ 호응



1981년도 개점했으며, 불교포교의 일환으로 원각사 포교당내 불교 관련 전문서적을 구비한 것이 시작이다. 판매하고 있는 불서는 약 3만여권 정도인데 이는 실제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처음에는 불교서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불교용품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작가와의 팬 사인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정전주, 김훈, 김용택 등과 팬 사인회 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각사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총판 두 곳과 9군데의 불교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062)232-754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정전주, 김훈, 김용택 등과 팬 사인회 겸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어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각사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총판 두 곳과 9군데의 불교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 (062)232-754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불교서원

온라인·기획 코너 마련 등 진취적 영업

독서모임·저자와 대화 준비



1998년에 불교서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서적과 문화상품을 보급하고자 개원했다.

현재 4천여 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 불교용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운영자가 불교용품에 비해 불교서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 ‘독서모임’과 ‘저자와의 대화’를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장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 매장도 리뉴얼해 불서를 체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기획 코너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062)226-305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 신수비결 : 30,000(삼만원)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글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운명록 전수생을 모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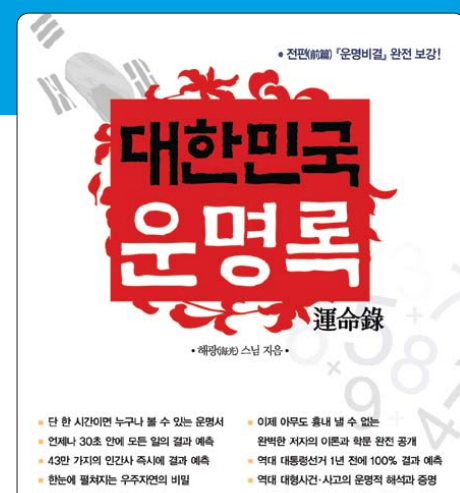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논리와 幽味를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자 격 : 현재 사임이나 포교원을 운영 중인 스님, 법사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스님이 되고자 하는 50세 이하의 불자

특 전 : 포교원, 사임의 운영에 전폭적 지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심령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경북대학교